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## 금융위기 이후 더욱 강해진 대형 손보사

- 최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올해 1~2월 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, 대형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, 중소보험회사들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 - 이른바 빅 3 보험회사로 분류되는 중국인민보험공사, 핑안손보, 타이핑양손보의 전체 시장점유율은 2004년 79.9%에서 2009년 64.2%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, 금융위기 여파가 잦아든 2010년에는 70.6%(1~2월 수입보험료 기준)로 크게 증가함.
  - 반면, 전체 52개 손해보험회사들 중에서 대형 보험회사 3사를 제외한 49개사는 약 30%의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, 특히 2009년 외자계 손해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전년대비 상승했으나 14개 중국계 보험회사들은 하락해 전체 중소보험회사들의 점유율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일부에서는 중소 보험회사들의 점유율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전체 손해보험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  - 올해 들어 대부분의 중소 손해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 보험업계의 체질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강도 높게 추진 중인 시장 규범화 및 감독관리 강화 정책 효과로 업계가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.
  - 또한 올해 2월 말까지 수입보험료 실적이 3억 위안을 밑돌고 있는 중소 손해보험회사 상당수가 고금리와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과 과도한 지출 등의 출혈경쟁 후유증으로 자금 사정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  - 일부에서는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중소 보험회사들의 한계를 고려할 때,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한 손해보험 업계의 구조조정이 표면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음.

(21세기경제보도, 4/8)